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홍정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료비(N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를 재원 및 지출용도별로 파악하여 이를 보건정책 입안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로 사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의료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 변화에서 기인된 질병구조의 변화, 가족계획 등 인구정책 실시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진보 등으로 보건의료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비하여 의료비 지출 재원 및 지출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보건정책 입안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의료비 규모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보건의료 관련 지출규모 및 재정조달, 소비자 의료행태 및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다.

1. 국민의료비의 추계

추계된 경상 국민의료비 규모는 의료보험 도입 이듬해인 1978년에는 연간 7,060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듬해인 1990년에는 연간 8조 3,180 억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1993년 현재 연간 12조 3,9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실시 이듬해인 1978년에 비해 18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1972년에는 2.7%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0년에는 4.7%에 이르렀으며, 그 후 안정세를 유지하며 1993년 현재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경상 국민의료비도 1972년 3,328 원, 1978년 1만 9,097원, 1990년 19만 4,032

원, 1993년 현재 28만 1,369원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국민의료비 자원별 지출현황

연도	국민 의료비 (10억원)	1인당 국민의료비 (원)	GDP대비 비율 (%)
1972	111.5	3,328	2.7
1973	138.2	4,052	2.6
1974	211.4	6,094	2.8
1975	271.5	7,695	2.7
1976	350.8	9,786	2.5
1977	467.9	12,850	2.6
1978	706.0	19,097	2.9
1979	921.0	24,538	3.0
1980	1,223.8	32,101	3.3
1981	1,616.3	41,740	3.5
1982	2,105.6	53,542	4.0
1983	2,623.8	65,742	4.2
1984	3,057.9	75,679	4.3
1985	3,596.2	88,130	4.5
1986	4,072.0	98,873	4.4
1987	4,902.5	117,920	4.5
1988	5,806.2	138,326	4.4
1989	6,937.5	163,697	4.7
1990	8,318.0	194,032	4.7
1991	9,859.3	227,864	4.6
1992	10,927.9	250,276	4.6
1993	12,396.0	281,369	4.7

자료: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 의료비용의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 국민의료비의 국제비교

국민의료비 규모를 대미환율로 환산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199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미화 310달러이며 1인당 GDP는 미화 7,051달러로 1인당 국민의료비 및 GDP 모두 멕시코 및 터키를 제외한 OECD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1993년 현재 4.7%로 OECD국가 중 2.7%인 터키보다는 높지만 5.7%인 그리스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공공부문 비중은 1993년 현재 43.3%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미국의 43.9%와 비슷한 수준일 뿐, 터키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의 공공부문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3. 국민의료비의 장기전망

국민의료비를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비하여 예측해 보면, 2000년에는 5.6%, 2010년에는 8.6%, 2020년에는 13.5%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치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의료수요를 요구하는 연령층이 더욱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증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추계된 총 간접의료비용 추정액은 연간 4조 9,508억원이었으며, 잠정추계한 1995년도 국민총생산 규모 348조 2,843억원과 비교해 볼 때 대략 1.42% 수준이다.

4. 1995년 연간 간접의료비용 추계

추계된 국민의료비 규모와는 별도로 간접의료비용을 추계한 결과 1995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총 간접의료비용 추정액은 입원이 연간 약 4,777억원, 외래가 대략 연간 4조 4,731억원으로 총 추정액은 연간 4조 9,508억원이었다.

입원에 따른 간접의료비용에는 방문소요시간에 따른 비용이 연간 163억원이며, 왕래비용은 연간 3,917억원이다. 또한 간병비용은 연간 366억원이었으며, 기

표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교('93년 기준)

(단위: 미달러)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일 본	영 국	미 국	한 국
1인당 의료비	1,943	2,129	2,308	1,485	2,463	1,161	3,299	310
1인당 GDP	19,271	21,773	26,912	17,423	33,848	16,405	23,358	7,051
NHE/GDP	8.3	9.8	8.6	8.5	7.3	7.1	14.1	4.7

표 3. 국민의료비의 장기추세

(단위: 10억원, %)

	1993	1995	2000	2010	2020
NHE	12,396.0	15,876.4	27,781.0	72,437.1	167,870.2
NHE/GDP	4.7	4.7	5.6	8.6	13.5

표 4. 선진국의 국민의료비의 공공부분 비중('93년 기준)

(단위: %)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일 본	영 국	미 국	한 국
PHE/NHE	71.9	74.4	70.2	73.1	71.8	83.0	43.9	43.3

타 부대비용은 연간 33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외래방문에 따른 간접의료비용을 살펴보면 외래방문에 의한 시간소요비용은 대략 연간 2조 3,972억원이었으며, 진찰 대기시간에 따른 시간손실비용은 연간 7,204억원이었다. 또한 외래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총교통비는 연간 약 1조 3,556

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모는 잠정추계한 1995년도 국민총생산 규모 348조 2,843억원과 비교해 볼 때 1.42% 수준이며, 추정된 1995년도 국민의료비의 규모인 연간 15조 8,764억원을 간접의료비용과 합산하면 20조 3,495억원으로 국민총생산 규모의 5.8%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5. 총 간접의료비용의 규모 및 구성('95년 기준)

(단위: 10억원)

총계	입 원					외 래			
	소계	왕래시간 비용	왕래비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	소계	방문소요 비용	대기시간 비용	교통비
4,951	478	16	392	37	33	4,473	2,397	720	1,356

5.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소득의 증대, 전국민 의료보험화 및 고령인구의 증가 등 지속적인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간접의료비용의 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건강검진 등과 같은

건강예방사업에 늘리는 등 적절한 의료비 억제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접의료비용의 22% 수준인 간접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호스피스 등 전문간호인력의 확충 및 고령자 대상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외래이용률 및 외래방문소요시간의 감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진료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